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술은감자다 제작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작

브라보 대구! 비바 오페라!
Bravo, Daegu! Viva, Opera!



양촌리 러브 스캔들

G. Donizetti

L'elisir d'amore



아양아트센터 아양홀
Ayang Arts Center Ayang Hall

예술은감자다 제작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작

L'elisir d'amore

G. Donizetti 양촌리 러브 스캔들

10. 23(금) 19:30 - 24(토) 15:00
아양아트센터 아양홀

주최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주관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 DGCF 대구동구문화재단 | 감자

L’elisir d’amore

G. Donizetti 양촌리 러브 스캔들



개요

작곡 가에타노 도니제티(1797-1848)
대본 펠리체 로마니
원작 가에타노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초연 2015년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형식 2막
언어 한국어(국문/영문자막 제공)
시간 120분(인터미션 15분 포함)
연령 초등학생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각색·연출 정선영
음악감독·지휘 조정현

출연진

N군 Ten. 김효종
A양 Sop. 김나연
B중사 Bar. 김종표
약장수 D씨 Bar. 김경천
짱나리 Sop. 김혜정

예술은감자다 성악 및 연기 앙상블
예술은감자다 기악 앙상블

INFORMATION

Composer Gaetano Donizetti(1797-1848)
Librettist Felice Romani
Based on Gaetano Donizetti <L'elisir d'amore>
Premiere 2015 Seoul Arts Center Jayu Theater
Form 2 acts
Language Korean(Korean/English Supertitle)
Running Time 120min(incl. 15-min intermission)
Age 7+(born by Dec. 31, 2019)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Adapted by·Director Jung Sunyoung
Music Director·Conductor Cho Junghyun

CAST

Nemorino Ten. Kim Hyojong
Adina Sop. Kim Nayun Lea
Belcore Bar. Kim Jongpyo
Dulcamara Bar. Kim Gyeongcheon
Giannetta Sop. Kim Hyejeong

Art is Potato Vocal and Acting Ensemble
Art is Potato Instrumental Ensemble

Contents

목차

인사말 Greetings 06
작곡가 소개 Composer 08
연출가 노트 Director’s Note 10
줄거리 소개 Synopsis 12
등장인물 Characters 13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14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15
주요 제작진 Creative Team 16
출연진 및 출연단체 Cast 17
제작진 Staff 23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29

Greetings
인사말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술감독
이 경 재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선보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네 번째 작품은 민간 오페라 단체와의 협력으로 마련한 오페라 <양촌리 러브 스캔들>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양촌리 러브 스캔들>을 포함한 5개의 메인 작품과 함께 차기 창작을 위한 한국 창작 쇼케이스 <코리아 콘체르토>, 대구성악가협회와 공동주관한 <50 스타즈 VI>, 대구음악협회와 마련한 프린지 콘서트, 국제오페라포럼 및 오페라 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대구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촌리 러브 스캔들>은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민간단체 협력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작품입니다.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민간오페라단체 가운데 "예술은감자다"가 선사하는 오늘 무대는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을 한국어로 번안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담은 시골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번안 오페라의 새로운 지평을 제안하는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서양 오페라가 한국어와 한국적 소재를 만나 얼마나 자연스럽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관객 여러분의 즐거움을 한껏 돋울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미 서울 및 여러 지역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작품을 대구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정선영 연출님, 조정현 지휘자님을 비롯한 연주자분들과 제작 스태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함께 애써주신 아양아트센터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객 여러분도 오늘 공연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한 추억을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감독
정 선 영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걸작 <사랑의 묘약>은 19세기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작품은 흙먼지 묻고 햇볕에 그을린 시골 청년의 진심과 헌신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임을 보여줍니다.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의 대표 레퍼토리 오페라 <양촌리 러브 스캔들>은 바로 이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 삶의 정겨운 무대로 옮겨오며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무대 한가운데 떠 있는 구름 모양의 말풍선 자막과 유쾌한 번안으로 큰 호평을 받으며 2016년 의정부음악극축제에 초청되었습니다. 이어 2024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와 2025년 전국 순회공연을 거치며 한층 더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2026년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선보인 이번 무대는 오페라의 한국적 수용과 대중화를 확장하고자 전막을 자연스러운 한국어 가사로 새로이 번안하여 올렸습니다. 자막과 노랫말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누구나 뮤지컬처럼 쉽고 편안하게 극의 감정을 따라갈 수 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친근한 배경으로 관객에게 다가가면서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비롯한 도니제티 원곡의 벨칸토 음악적 매력을 오롯이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성악가들의 섬세하고 해학적인 연기를 함양하는 자체 성악 연기 교육 시스템인 '오페라 액팅랩'을 본 작품에 접목하여 정통 오페라의 깊이와 연극적 몰입감을 동시에 완성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단체들이 함께하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참가는 본 작품에 있어 관객 저변을 확대하는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위해 정성을 다해 애써주신 이경재 예술감독님을 비롯하여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아양아트센터의 모든 스태프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omposer
작곡가 소개

Gaetano Donizetti
가에타노 도니제티
1797-1848

로시니, 벨리니와 함께 벨칸토 오페라 최고의 작곡가로 꼽히는 가에타노 도니제티(Gaetano Donizetti)는 1797년 11월 29일, 가난한 전당포 주인의 여섯 자녀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운좋게도 그 당시 오페라 작곡가로 이름을 날리던 조반니 시모네 마이어의 음악학교에 입학하여 음악교육을 받고 난 뒤, 세계적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를 배출한 볼로냐 음악원에 입학하여 음악을 공부하게 된다.

나폴리에서 오페라 <집시 여인 La Zingara>으로 성공한 뒤 약 8년간 다른 작곡가들의 오페라 작품들을 지휘하며 로시니 스타일의 비교적 가벼운 오페라들을 작곡해 오던 그는, 1830년에 초연한 오페라 <안나 볼레나 Anna Bolena>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 시기에 오페라 <루크레치아 보르자 Lucrezia Borgia>, <마리아 스투아르다 Maria Stuarda>, <부온델몬테 Buondelmonte> 등을 통해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1832년, 도니제티가 단 6주만에 완성한 <사랑의 묘약 L'elisir d'Amore>은 '완벽한 희극오페라'로 손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특히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애창곡으로 잘 알려진 명곡 '남 몰래 흘리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로 유명한데, 당시 대본가 펠리체 로마니는 희극오페라의 신나는 분위기를 급격히 가라앉힌다는 이유로 도니제티가 이 곡을 넣는 것을 반대했으나 시간이 흘러 관객이 극 중 가장 기다리는 아리아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외에 자신의 이름을 오페라사에 길이 남긴 불후의 명작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Lucia di Lammermoor>을 비롯하여 <연대의 딸 La Fille du Régiment>, <돈 파스콸레 Don Pasquale>, <라 파보리타 La Favorita> 등 수많은 오페라를 남겼다.

도니제티의 작품은 로시니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의 작품을 빼놓고 보면, 매끄럽고 아름다운 선율과 적절한 극적 효과의 특징이 있다. 이런 점은 빈약한 관현악법과 대본의 평범함을 보완해주기에 충분하며 그의 자필 악보들은 이탈리아 나폴리의 도서관, 밀라노 리코르디(Ricordi) 출판사, 그리고 파리 음악원에 보존되어 있다.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일 중독증으로 평생 오페라를 작곡한 도니제티는 70여 편의 오페라를 남기고 1848년 우리 곁을 떠났다.



Director's Note
연출가 노트

오페라는 우리에게 무엇이며, 우리는 오페라를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감미로운 선율과 매혹적인 목소리, 화려한 유럽풍 드레스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고 낯선 서구 문화를 감상하는 것도 오페라를 즐기는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무대를 원작 그대로만 재현할 경우, 한국 관객에게는 음악 이면에 담긴 작가의 의도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곤 한다.

예를 들어, 세련된 귀족과 투박한 시골 농부의 신분 격차는 서양 복식에 익숙지 않은 우리 눈에 쉽게 와닿지 않는다. 유럽의 허름한 시골집조차 운치 있는 2층 집으로 다가오고, 투박한 밀짚모자나 드레스에 달린 작업용 끈 하나마저 멋들어지게 보이는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한 낯선 동경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시각적인 이국 정취에 시선이 머물다 보면, 극의 본질인 평범한 서민들의 투박하고 진솔한 삶의 정서가 오히려 가려지기도 한다.

작곡가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 19세기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주인공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내 흙먼지 묻고 햇볕에 그을린 소박한 농부의 모습 속에서 '순수한 사랑과 상대를 향한 헌신이야말로 무엇보다 값진 보물'임을 깨닫게 된다.

이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 정서에 맞게 풀어낸다면 어떨까? 무대를 정겨운 한국의 농촌으로 옮겨보자.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할 만큼 촌스럽고 소심한 청년이 모두 잠든 깊은 밤, 홀로 숨죽여 사랑을 곱씹으며 감격의 눈물을 훔치고 있다. 낮 동안 달아오른 열기로 뿌옇게 낀 안개 너머 달빛이 논밭 위로 아스라히 번지고, 도랑마다 울려 퍼지는 개구리 소리는 어느새 여름밤의 자장가가 된다.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닿은 곳은 짝사랑하는 그녀의 집 앞. 낑낑거리며 반기는 누렁이를 달래고, 행여 그녀의 곤한 잠을 깨울까 숨죽이며 창가에 기댄다. 그녀가 멋진 낙하산을 타고 날아온 당당한 공군 중사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 저녁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엿보았다. "날 질투했다면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보잘것없는 나를 좋아하다니! 이제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어."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이 어느새 동이 트고, 두 사람은 비로소 사랑과 서로를 향한 믿음의 소중함을 확인한다.

오늘, 여기 정겨운 시골 마을 '양촌리'에 들른 관객들은 빛나는 햇살 같은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 가슴 한구석에 간직해 둔 자신만의 애틋한 사랑 한 조각을 보송하게 말려버리길. 극장 문을 나서며 한층 맑게 개인 일상을 맞이하길 바란다.

- 예술감독·각색·연출 정선영



Synopsis
줄거리

제 1막

이 곳은 양촌리. 평화로운 농촌이다. 성실하고 순수한 청년 N군은 마을의 인기스타 A양을 짝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콧대 높은 A양은 사랑은 허울뿐인 가치이며 부질없는 것이라며 수차례 거절한다.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롭던 어느 날, 양촌리 마을에 공군이 비상 착륙하게 된다. 자신감 넘치는 B중사와 그의 부하들. B중사는 A양을 보자마자 한 눈에 반하게 된다.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그는 A양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마을에 웬 도사가! 없던 병도 낫게 해준다는 약을 들고 나타나 마을 주민들에게 약을 팔기 시작한다. N군은 약장수 D씨에게 전설의 사랑의 묘약을 구매한다. 하지만 약의 정체는 뽕동동주! 그는 단숨에 묘약을 마셔버렸고 효능이 나타나는 하루를 애가타게 기다린다. 묘약의 효능을 믿고 기세등등해진 N군의 모습에 A양은 약이 올라 오늘 밤 B중사와의 결혼을 선언하고 N군은 크게 절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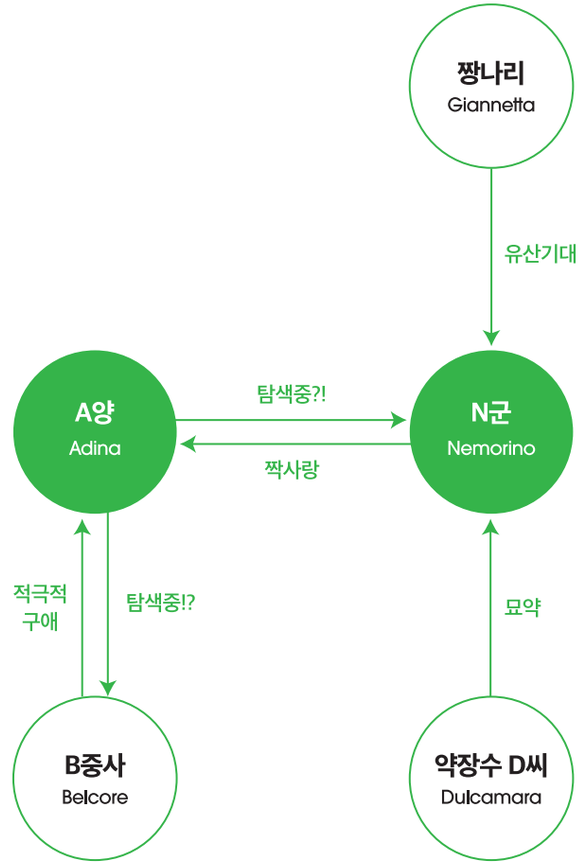
제 2막

B중사와 A양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다. 그저 신이 난 B중사와 내심 N군이 오길 기다리는 A양. 아무리 찾아도 N군이 보이지 않자 결혼식을 미루게 된다.
B중사는 궁시렁거리며 어슬렁거리다가 돈이 없어 사랑의 묘약을 사지 못해 풀이 죽어있는 N군을 만난다. B중사는 그까짓 돈은 입대하면 해결될 일이라며 입대를 유도한다. 당장 사랑의 묘약을 구하는 것에 혈안이 된 N군은 돈을 받고 계약을 맺는다.

이런 저런 추측만 오가는 가운데 우리의 말괄량이 짱나리. 대박 소식을 물고온다. 그것은 바로 N군이 삼촌의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것! N군의 비밀을 듣게 된 마을 여자들은 혼비백산 난리 부르스! 하지만 N군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채 이것이 사랑의 묘약의 힘이라고 믿게 된다.
여인들의 N군의 환심 사기 소동이 일어나는 중, A양은 N군의 입대 소식을 듣고 찾아온다. 자신도 모르게 N군에게 화를 쏟아내던 A양은 그제서야 자신도 N군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Characters
등장인물

N군	누구보다 순박하고 순수한 마을 청년. A양을 몹시 짝사랑하고 있다.
A양	양촌리 마을의 인기 스타이자 N군의 짝사랑. N군과 B군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
B중사	마을에 불시착한 테토남 공군 부사관. 첫눈에 A양에게 반해 적극적인 구애를 한다.
약장수 D씨	양촌리 마을에 온 신통방통 약장수. N군에게 가짜 묘약을 판매한다.
짱나리	양촌리 마을의 재기발랄 정보통. 삼촌의 유산을 받을 N군에게 구애를 한다.



Scenic Design
무대디자인



“마치 빛바랜 옛 엽서 한 장을 들여다보듯, 흘러가는 뭉게구름 한 점 아래,
그 시절 우리들의 소박하고도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적혀 내려갑니다.”

가에타노 도니제티(G. Donizetti)의 19세기 초 이탈리아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1980년대 한국의 정겨운 농촌 양촌리 마을로 재해석하였습니다.

순박한 청년 네모리노와 당차고 아름다운 아디나, 그리고 신비한 약장수 둘카마라가 펼치는 서정적이고 유쾌한 오페라는 80년대 한국 시골이 지닌 특유의 정과 따뜻한 감성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번 무대는 시대적 미학을 직관적이고 위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 ‘평면의 엽서(Postcard Visuals)’라는 미학 매커니즘을 채택했습니다. 실제 풍경과 오브제를 촬영한 실사(Photographic Print)를 평판에 부착하여 무대 위에 레이어드로 배치했습니다.

이 무대의 가장 큰 조형적 특징은 ‘착시와 공간감의 유희’입니다. 조명과 시선의 각도에 따라 관객은 평면의 판넬이 주는 가벼움과 위트를 느끼는 동시에, 겹겹이 배치된 레이어(Layer)의 깊이감을 통해 무대 전체를 하나의 입체적인 마을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팝업북(Pop-up Book)이나 정성스레 오려 붙인 종이 그림처럼, 실사 평판들은 아늑한 시골 마을의 감성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며 오페라가 갖는 희극적이고 동화적인 문법을 한층 부각시킵니다.

무대 곳곳에 배치된 정겨운 평면 요소들을 보물찾기하듯 찾아보는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담장 위 참새, 해바라기, 전봇대, 누렁이, 뭉게구름 등) 배경 원경에 유유히 떠 있는 구름 한 점은 단순한 자연의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박한 시골 청년의 짝사랑이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이자, 그들의 소박한 이야기가 하나씩 적혀 나가는 한 장의 종이와도 같습니다.

1980년대 붉은 기와지붕과 돌베슈퍼, 그리고 전봇대 아래 누렁이가 반겨주는 이 작고 어여쁜 마을에서, 관객 여러분 모두가 잊고 지내던 아날로그적 감성과 순수한 사랑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무대 디자이너 김현정

Costume Design
의상디자인



A양



N군



B중사



약장수 D씨



짱나리



마을사람들

오페라 <양촌리 러브 스캔들>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새침한 소녀 A양과 순수한 청년 N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의상은 우리가 전원생활 속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친근하고 구수한 인물들의 모습에서 출발했다. 꾸밈없이 소박하지만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옷차림을 통해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를 보여주고, 시골 마을 특유의 정겨움과 유쾌함을 무대 위에 담아내고자 했다.

- 의상 디자이너 김은지

Creative Team
주요제작진



예술감독·각색·연출 **정선영**
Artistic Director·Adapted by·Director **Jung Sunyoung**

- 서울예고,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오페라연출 석사 졸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국립오페라단 <돈 조반니>, 예술의전당 <투란도트>, 대구오페라하우스 <토스카>, <투란도트>, <아이다>, <운명의 힘>, <카르멘>, 영남오페라단 <오텔로>, 서울시교향악단 <트리스탄과 이졸데>,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왕자와 크리스마스>,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피가로의 결혼>, <해와 달이 될 뻔한 오누이> 등 다수의 오페라 연출
-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학교 등 출강
- 현)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대표 및 예술감독



음악감독·지휘 **조정현**
Music Director·Conductor **Cho Junghyun**

- 서울대학교 지휘과 졸업, 신시내티 음악대학 지휘과 석사 및 오페라과 AD 졸업
- 블루 다뉴브-벨라 바르톡 지휘 콩쿠르 1위
- 베를린 심포니, 부다페스트 심포니, 부산시향, 광주시향 등 국내외 정상급의 오케스트라 및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의 오페라단과 오페라 70여 편 공연
- 유럽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모차르트 교향곡 전곡 사이클 진행 중
- 2025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 초청 지휘
- 신시내티 음악대학 겸임교수 역임
- 현) 한국국제예술학교 설립 및 이사장,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Cast
출연진



N군 **Ten. 김효종**
Nemorino **Ten. Kim Hyojong**

- 연세대 성악과 수석 졸업,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뤼벡 국립음대 졸업
- 알렉산더 지라디 콩쿠르 1위, 비냐스 콩쿠르 관객상 외 2개 부문 특별상, 보칼 게니알 콩쿠르 2위, 제32회 중앙 콩쿠르 1위 수상, KBS 신인 콩쿠르 남자성악부문 1위, 제3회 서울예술상 수상
- 2012-2022 독일 브레멘 시립극장 전속 솔리스트,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하노버 슈타츠오퍼, 에센 알토 극장, 카셀 주립극장, 스위스 루체른 국립극장, 취리히 톤할레 극장, 오스트리아 린츠 시립극장, 폴란드 포즈난 국립극장, 스페인 바르셀로나 리세우극장,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극장,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유럽과 국내 무대에서 100편의 오페라 주역
- 현) 연세대학교 출강,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A양 **Sop. 김나연**
Adina **Sop. Kim Nayun Lea**

-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성악과,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석사, 마인츠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최고점수 졸업
- 독일 노이슈타트 마이스터징어 콩쿠르 우승
- 독일 하겐극장 <돈 조반니>, 레비어 음악극장 <프리덤 콜렉티브(초연)>, 뉘른베르크 주립극장 <피터 그라임즈>,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마인츠 주립극장 <헨젤과 그레텔>, 광주시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신데렐라>,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피가로의 결혼(한글)>, <사랑의 묘약(원어/한글)>, <헨젤과 그레텔(한글·어린이)> 등 다수 주·조역 및 2026 평창 대관령 음악제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참여
- 현)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출강 및 전문 연주자

Cast
출연진



B중사 **Bar. 김종표**
Belcore **Bar. Kim Jongpyo**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오페라과 전문사 졸업
- 성정음악콩쿠르, 대구성악콩쿠르, 라벨라 콩쿠르, 세일한국가곡콩쿠르, 양수화성악콩쿠르, 오사카 국제음악 콩쿠르 외 다수 1등 및 입상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립오페라단 국내 초연 '윌리엄 텔'의 주인공
- 예술의전당 주최 <투란도트>, <마술피리> 국립오페라단 <윌리엄텔>, <유쾌한 미망인>, <돈 조반니>, <라 보엠>, <세빌리아의 이발사>, <로미오와 줄리엣>, <신데렐라> 등 다수의 오페라 출연
- 바흐 칸타타, 브람스 레퀴엠, 모차르트 레퀴엠, 헨델 메시아 등 다수의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활동
- 현) 오페라 전문 가수로 활동 중



약장수 D씨 **Bar. 김경천**
Dulcamara **Bar. Kim Gyeongcheon**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석사, 단국대학교 음악학 박사(D.M.A) 졸업
- 국립오페라단 <피가로의 결혼>, <파우스트>, 서울 예술의전당 <투란도트>, 서울시오페라단 <코지판투테>, <로미오와 줄리엣>, <아말과 동방박사>, <돈 조반니>, 성남문화재단 <마술피리>, 광주시립오페라단 <망부운>, 인천아트센터 <박쥐>, <리골레토>,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피가로의 결혼>, <해와 달이 될 뻔한 오누이>, <양촌리 러브 스캔들>,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세비아의 이발사> 노블아트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더 뉴바로크 컴퍼니 <귀족 되기 대작전>, <상상병환자> 등 다수의 오페라 출연
- 현)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출강



짱나리 **Sop. 김혜정**
Giannetta **Sop. Kim Hyejeong**

- 이화여대 음악대학 성악과 실기수석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성악과 만점 졸업, 이탈리아 노바라 꼬챠 극장 아카데미 수료
- Arturo Toscanini, Enzo Sordello 국제 콩쿨 입상 및 수상
- 제 14회 국민일보 신인음악회 데뷔, 모차르트 'Exsultate, Jubilate', 비발디 'Gloria', 구스타프 말러 '4th symphony' 밀라노 오케스트라와 협연, 이탈리아 Bolgare 스톤시티 연주 출연,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라 보엠>, <사랑의 묘약>, <해와 달이 될 뻔한 오누이>, 창작 오페라 <이중섭> 등 주.조역 출연
- 현) 서울예고, 인천예고 출강 및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오페라코치 **홍진선**
Opera Coach **Hong Jinsun**

- 숙명여자대학교 기악과, 독일 마인츠 국립음대 가곡 반주 및 오페라 코치과 최우수 졸업
- 독일 마인츠 국립극장 <아마디지 라 가울라>, 국립오페라단 <라 보엠>, <루살카>, <피가로의 결혼>, <사랑의 묘약>, <코지 판 뚜떼>, <라 트라비아타>, <신데렐라>, <봄봄.동승>, 예술의전당 <카르멘>, 성남문화재단 <탄호이저>, <마술피리>, <카르멘>, <피가로의 결혼>, <라 보엠>, 부산문화재단 <피가로의 결혼> 등 음악 코치 및 피아니스트
- 숭실대 음악원, 인천예고 출강
- 현) 경희대 성악과 출강, 김포 엔젤스합창단 단장, 오페라 음악코치로 활동 중

Cast
출연단체

예술은감자다 성악 및 연기 앙상블
Art is Potato Vocal and Acting Ensemble


중3 **Sop. 김지민**


공주댁 **Alt. 강지윤**


할머니 **Alt. 박주영**


이룡 **Ten. 이진규**


김씨 **Bar. 이승우**


만철삼촌 **Bar. 박종신**


봉남 **Ten. 이수만**


방실이 **Sop. 김지원**


미희 **Alt. 황채림**


은숙 **Alt. 강다운**


군인2·공증인 **Bar. 심상우**


군인1·응식 **Ten. 박정환**


이장 **Ten. 김영효**


영자 **Sop. 민혜성**


츄리닝 **김기백**


염탐정 **Bar. 제갈믿음**

예술은감자다 기악 앙상블
Art is Potato Instrumental Ensemble


바이올린1 **이무은**


바이올린2 **이승희**


비올라 **이기석**


첼로 **최지호**


더블베이스 **유이삭**


플룻 **최수은**


오보에 **이미연**


클라리넷 **유문선**


바순 **김미소**


트럼펫 **유병영**


타악기 **한호진**



Staff
제작진



무대디자인 **김현정**
Stage Design **Kim Hyunjung**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Accademia di Belle Arte Brera 무대디자인 만점 졸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무대공간상 무대미술부분 수상 (적벽가)
- 오페라 <사랑의 묘약>, <피가로의 결혼>, <세빌리아의 이발사>, <마술피리>, <박쥐>, <라 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오텔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아이다>, <투란도트>,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레드슈즈>, <봄봄>, <동승>, <허왕후>, <운명의 힘>, <안드레아 세니에>, <가면무도회>, <나부코>
- 연극 '오리사냥', '연애희곡', '콜렉션', '십이야' 등
- 뮤지컬 '정난주', '스팸어랏' 등
- 창극 국립창극단 '적벽'
- 국립오페라단 미술감독 역임,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전임대우교수 역임



의상디자인 **김은지**
Costume Design **Kim Eunjee**

-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 졸업,
-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오페라 <양촌리 러브 스캔들>, <마술피리> 의상디자인, 신세계 PN 오페라 <마술피리> 의상디자인
- 국립오페라단 <트리스탄과 이졸데>, <1945>, <피델리오>, <라 보엠>, <마술피리>, <맥베스>, <나부코>,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외 다수 작품의 의상감독 및 조감독, 연극 '환상의 모파상', '안녕!B612: 어린왕자', '헤다가블러' 의상디자인, 밴드 [터치드] 스타일리스트(Mnet '그레이트 서바이벌 인베이전' 외 프로필 및 다수 M/V 참여)
- 현) 드레서케이 대표로 의상디자이너, 의상감독 등으로 활동

Staff
제작진



조명디자인 **한희수**
Lighting Design **Han Heesu**

- 제32회 전국무용제 율댄스컴퍼니 '물, 하늘을 그리다'(대통령상 수상 외 1)
- SAC 기획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피가로의 결혼>,
  <해와 달이 될 뻔한 오누이>, 광주시립오페라단 <라 보엠>,
  한강노들섬클래식 <세비야의 이발사>, 대구시립오페라단 <토스카>
- 백연발레프로젝트 와이 '바디시뮬라크르', 김복희 무용단 50주년 기념 공연 '춤의 향기'
- 일본 오사카 엑스포 '파소나기업관 메인쇼' 등 오페라, 무용, 멀티미디어쇼 공연 조명 디자인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미술과, 무용과 출강



영상디자인 **박소라**
Video Design **Park Sora**

-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오페라 양촌리 러브 스캔들>, <오페라 하이라이트 페스타>,
  대전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창작오페라 <구운몽>
- 신세계 트리니티홀 <카르멘>
- 스프링 페스티벌,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정기 공연 '다시 그리는 노래'
-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2025 환대'
- 한국무용제전 '존재적 반향'
- 강릉 페스티벌 '로스팅 드림즈' 등 다수의 공연 영상디자인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미술과 전문사 재학



분장디자인 **정수연**
Makeup Design **Jeong Suyeon**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양촌리 러브 스캔들>
-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 '리어왕', '메피스토', '못 말리는 프랑켄', '간과강', '세인트 조앤',
  '모스크바 갈매기', '국물 있사옵니다'
-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삼총사', '잭 더 리퍼', '검은사제들', '아이언 마스크',
  '메피스토', '블랙슈트', '인터뷰', '스모크', '곤 투모로우', '쌍화별곡', '브로드웨이 42번가'
- 어린이뮤지컬 '캔터빌의 유령', '폴리', '오즈의 마법사' 외 다수 분장 실장 및 분장팀으로 참여
- 현) 프리랜서 분장 실장

Staff
제작진



무대감독 **양상건**
Stage Director **Yang Sanggeon**

- 호남오페라단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 팔리아치>, <카르멘>,
  노블오페라단 <허왕후>, <달하비취시오라>, <토스카>,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로미오와 줄리엣>,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해와 달이 될 뻔한 오누이>,
  <양촌리 러브 스캔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리골레토>, 군산예술의전당 <루치아>,
  광주예술의전당/여수예울마루 <창작 오페라 침묵>
- 서울발레시어터 '호두까기인형',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피터팬', '신데렐라' 등 다수의 무대감독
- 현) 디렉터스 무대감독



조연출 **김소원**
Assistant Director **Kim Sowon**

- 중앙대학교 성악전공 차석 졸업, 동대학 연극(연출), 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
- 청년경연대회 'IGNITE' 연출 참여 은상
- 국가우수장학금 예체능 우수장학생 선정 및 강연 진행, 삼성 꿈장학생
- 피콜로 페스티벌 오페라 <어린왕자>, 기획 공연 인형극 '흰둥이 특공대',
  부산라온첼로오케스트라 정기공연 등 연출
- K-MEGA Opera in Europe, STADTHALLE WUPPERTAL 오페라 <춘향전>,
  CONSERVATORIO musica BENEDETTO MARCELLO di VENEZIA SALA CONCERTI,
  창작 뮤지컬 '도시깨비뎐',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콘서트 <요정여왕> 등 협력연출
- 현) MURAMA 대표 및 연출



기획/조연출보 **안재후**
Planning/Assistant Director **Ahn Jaehoo**

- 국민대학교 음악학부 성악전공 졸업
- 예술의전당 <투란도트>, 서울시오페라단 <아이다>, <나부코>,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해와 달이 될 뻔한 오누이>, 더뮤즈오페라단 <치즈를 사랑한 할아버지>에
  연출팀 및 기획으로 참여
- 현)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기획



조연출보 **임주현**
Assistant Director **Im Juhyeon**

- 현) 명지대학교 보컬뮤직전공 재학

Art is POTATO
예술은감자다 소개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는 타문화권의 음악극 장르(오페라)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재창조하는 예술단체이다. 2010년 오페라 연출가 정선영에 의해 설립되어 오페라의 원작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서민적 공연 방식인 "마당놀이"와 접목하거나, 자막을 극적 공간 안으로 흡수시키는 등 독특하고 과감한 시도로 평단의 주목을 받아 오고 있다.

2011년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관객 저변을 넓히기 시작했으며, 2012~2013년 <음악으로 읽는 세계문학 시리즈 1 - 로미오와 줄리엣 & 봄봄>으로 공연예술창작기금 총평에서 "우리나라 소극장 오페라 공연의 새로운 전범"이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음악으로 읽는 세계문학 시리즈 여름 특선 - 봄봄>을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공연하였다. 2015년에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드라마 '전원일기' 모티브로 연출한 <양촌리 러브 스캔들>을 예술의전당에서 초연하여 관객과 평단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오페라의 한국화' 공로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2018년 서울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되었다. 특히 당해 공연되었던 모차르트 작품을 조선시대로 옮긴 <피가로의 결혼>은 단체의 방향성에 부합되는 공연으로써 그 의미를 인정받았다. 2022~2024년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 하이라이트 페스타:봄봄/카르멘/오텔로> 시리즈와 한국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한 <헨젤과 그레텔: 해와 달이 될 뻔한 오누이> 등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지에서 성황리에 공연했다.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 주체(2025년~2027년)로 선정되어 2025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의 <피가로의 결혼> 한국어 번안 초연, 2026년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의 <양촌리 러브 스캔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더불어 단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오페라액팅랩'을 운영하며, 단순한 배경 변환을 넘어 깊이 있는 작품 분석과 연기력을 통해 관객의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Production Staff
프로덕션 스태프

예술감독·각색·연출 정선영
음악감독·지휘 조정현
오페라코치 홍진선
무대디자인 김현정
의상디자인 김은지
조명디자인 한희수
영상디자인 박소라 (하이퍼스테이지)
음향디자인 안형록
분장디자인 정수연
의상감독 고수아
음향조감독 박상희
조연출 김소원
조연출보 안재후 임주현

무대감독 양상건 (디렉터스)
무대 송주관 권기복 임찬울
의상 이서희
조명 김하림 구은홍 전다록
영상 이지훈
분장 권아영 박현주
자막 / 연습반주 이채영
영문자막 고천재
오퍼레이터 하주찬
영상촬영팀 나무앤숲
사진촬영팀 용스튜디오
무대제작 김준성 (온스테이지)
구상현 정기준 권오준 김형도
기획 안재후 박주영
홍보 홍유선 신유빈

Production Staff
프로덕션 스태프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Daegu Opera House

공연예술부장 김수정
무대시설부장 강영구
공연기획팀 팀장 최은정 이한나 박선영 최서윤 한규리
최보윤 양정화
국제교류팀 팀장 김민정 박형기 심유진 박새별 강지윤
홍보마케팅팀 팀장 정유경 김유리 백지연 최수민
무대예술팀 팀장 박병달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박준환
정진섭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조현우
시설관리팀 팀장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김동현

11기 오페라팬 김혜영 박윤정 박채린 오승미 정다은
19기 오페라필 구묘선 권민수 김규리 김다현 김동현 김민채
김보영 김서현 김수아 김예주 김은미 김은선
김주연 김채원 도예은 도인하 류승운 문경은
박인기 박제민 박지은 박한별 백지영 오서빈
오성준 옥지연 윤혜원 이경연 이나경 이세은
이수인 이조은 이효식 장가은 장세희 장지웅
정다은 최성경 최영주 황금선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AUTUMN 2026 FANTASIA DAEGU FESTA
판타지아대구페스타